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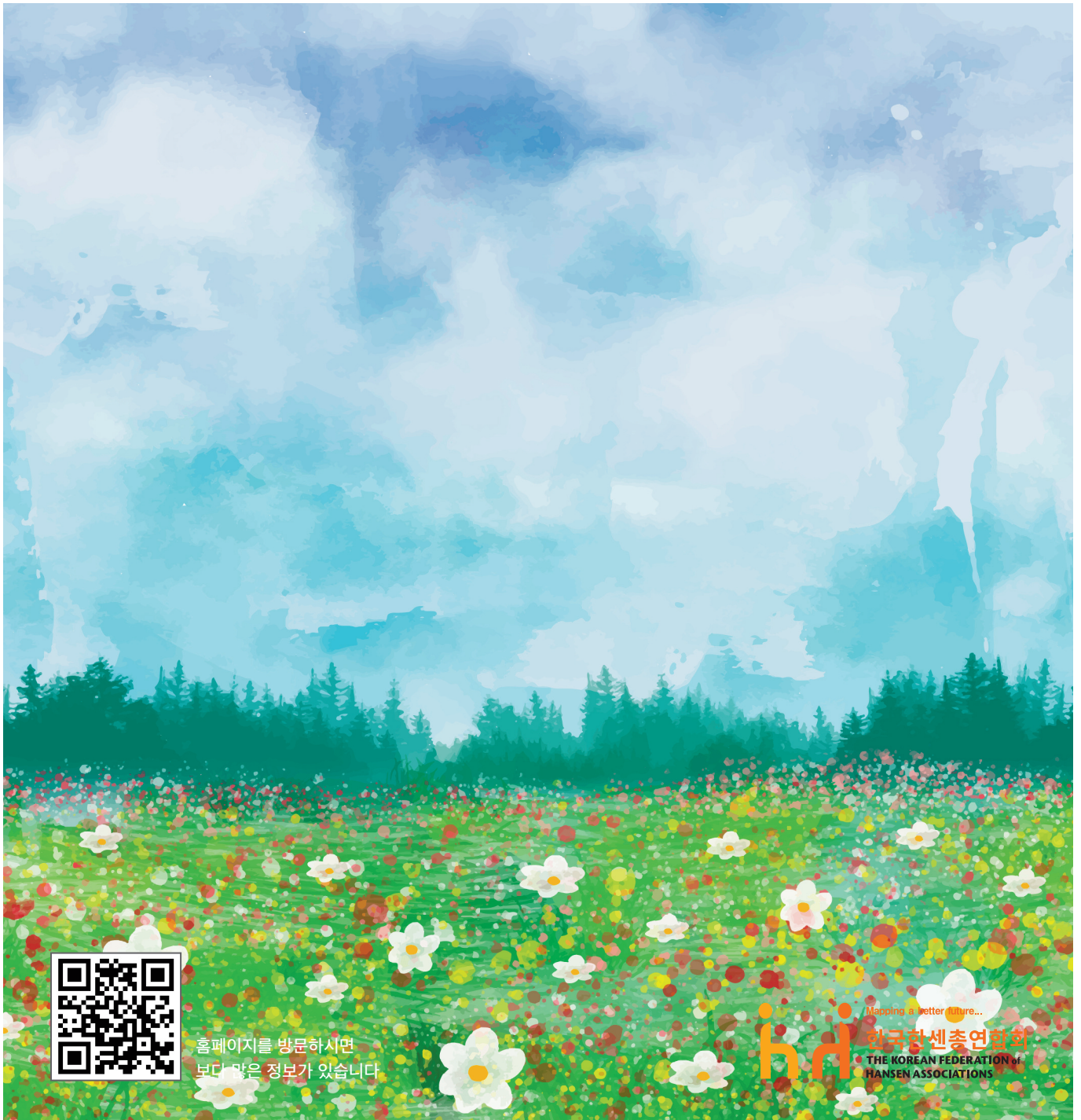
2025

Vol. 130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

5·6 월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Mapping a better future...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한국한센총연합회 소개

한국한센총연합회는

1969년 10월 13일 발족되어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핵심가치

- HARMONY** — 한센가족과 HARMONY 국민 모두의 소통을 통한 편견 해소
HOPE — 한센가족의 사회통합과 재활에 대한 소망 실현
HAPPINESS — 전 세계 한센가족의 인권과 복지 증진

비전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미션

- 한센인의 보건 복지 증진 — 한센인의 사회 통합 지원
— 한센인의 권익 보호 강화 — 한센인의 인권 신장 확대

사업목표

- 한센인 관련 법, 제도 등의 개정 및 제정 — 한센인 사회 통합 지원
— 한센인의 보건복지 등 삶의 질 향상 — 미래지향적인 한센정책 수립
— 한센 관련 단체와 연대 강화 — 국제 교류 협력 확대
— 한센인(병)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한센인 권익 증진 — 한센 관련 정책을 통한 주도적 위상 제고

사업소개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

한센인
복지사업

한센인
인권증진 사업

기획·홍보
사업



한센가족(hansen)을 상징하는 'h'로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가 눈높이를 맞춰 소통으로 하나되고 대한민국 한센사업의 통합과 한센가족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 실현을 위한 열정을 형상화함

총연합회 공식 SNS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CONTENTS

한센포커스

02 인사말

- 함께 이룬 오늘, 함께 열어갈 내일

04 스페셜 리포트

- 제22회 한센인의 날

20 한센 리포트

-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 치매예방교육
- 대중매체 모니터링
- 총연합회 홈페이지 개편
-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한센탐방

32 지부는 지금

- 경기지부
- 울산·경남지부

36 관계단체동정

- 한국한센복지협회
- 한국IDEA협회

38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한센공감

40 함께하는 한센

- 노년의 삶과 이별_박우택(서울·중부지부장)
- 한센인들이 소록도 갈 때 들었던 ‘무카이집’이야기_오문수

한센이모저모

48 한센병 바로알기

- 한센병, 궁금해요!
- 복지지원 한눈에 보기

52 정보알리미

- 정확한 진단과 규칙적인 약물 복용이 중요합니다.
- 헛갈리는 쓰레기 총정리
- 요즘이책

60 독자들의 공간

- 치매 예방 학습자료
- 한센 게시판
-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제23권 제3호 통권 제130호 발행일 2025년 5·6월호 발행인 이길용 편집인 우홍선 발행처 한국한센총연합회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전화 1566-2339 팩스 1566-2032 홈페이지 www.hansenkorea.org
이메일 hansen@hansenkorea.org 디자인&인쇄 디자인앰퍼샌드 격월간 비매품
※ 「한센」은 일반회계(국고지원)의 지원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함께 이룬 오늘, 함께 열어갈 내일



사랑하는 한센 회원 여러분!

지난 5월 15일, '제22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소록도에서 전국의 한센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가 내려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굳건한 연대를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먼 길을 해주시고,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바쁜 일정에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님을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 문금주·차규근 국회의원님,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위원장님, 공영민 고흥군수님, 김춘진 前 국회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한센인의 날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날의 감동과 연대의 정신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삼청마을에서는 한센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교육을 마쳤습니다. 어르신들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여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삶의 활력을 북돋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한센인분들께서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신 만큼, 보다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전동 보장구 안전관리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센병과 한센인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센인(병)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향후 효과적인 홍보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기반이 될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민의 인식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화해와 포용의 첫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삶을 지지하고, 사회와의 건강한 연결을 이어가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센 회원 여러분!

우리는 긴 세월 동안 말 못 할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버텸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과거를 회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서로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켜온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우리 안에 깃든 품위와 가치를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온 마을과 가정, 공동체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등불이고,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욱 존중받고 빛날 수 있도록, 총연합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의 길을 함께 밝혀나가겠습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 **이길용**



‘한센인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제22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9주년 기념 행사

우리 총연합회는 한센인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15일,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 ‘제22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9주년 기념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센인의 날은 국가 한센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올해는 ‘한센인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센인의 인권신장과 복지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한센인과 비한센인이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본 행사는 전국 80개 정착마을과 5개 생활시설, 국립소록도병원, 재가 한센인 등 전국 각지의 한센 가족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위원장, 공영민 고흥군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차규근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 김춘진 前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센관계단체, 자원봉사자, 일반 시민 등 총 3,500여 명이 참여해 화합의 장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30여 년간 한센인 정착마을에서 봉사하며 한센인 복지와 편견 해소에 힘쓴 이순자 경남봉사미회 회장과 김연실 한국한센복지협회 의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 외에도 국

무총리 표창 2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8명 등 총 22명이 유공자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추억사진관’과 ‘행복사진관’이 올해도 다시 마련되어, 한센인들이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간직할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전국 한센사랑 축제 한마당’이 함께 열려 웃놀이,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한센인 간의 소통과 화합이 이뤄졌다.

한센병 박물관에서는 2024년 기획전인 ‘두 개의 목소리’를 확장하여, 일본 동경에 위치한 전생원의 대표 목소리를 추가한 전시가 이루어졌으며, 소록도병원과 인연을 맺은 예술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증작품전 ‘둘’도 함께 열렸다. 이를 통해 예술을 통한 공감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한센인이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국가 한센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라며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증진에 기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이번 행사가 한센인의 권익 향상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센사랑 축제 한마당 개최



한센 사랑 축제 한마당에서는 윷놀이와 노래자랑이 이어지며, 한센인과 일반 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다.

전국 한센가족 윷놀이는 총 16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그 결과 전남지부 도성마을이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전국 한센가족 노래자랑에는 12개 팀의 참가자가 자신만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 노래를 열창하며 현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한센사랑 축제한마당 시상자 명단

<전국 한센가족 윷놀이>

소속	순위
도성마을(전남지부)	1등
성생마을(경기지부)	2등
안동성좌원	3등
희망마을(경북지부)	4등

<전국 한센가족 노래자랑>

소속	순위
한○숙(소록도자치회)	1등
김○실(경기지부 성생마을)	2등
전○진(경남지부 영신마을)	3등
김○숙(경북지부 삼애마을)	4등

● 전국 한센가족 웃놀이 ●



● 전국 한센가족 노래자랑 ●



정부 및 주요 인사들의 축하와 참여로 빛난 행사

이날 행사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차규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위원장, 김춘진 前 국회의원, 공영민 고흥군수 등 정부 및 관계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한센인의 날을 함께 축하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도 한센인이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한센사업 단체들과 함께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김영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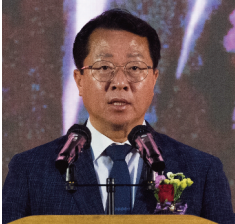
전라남도 도지사



“한센인과 그 가족을 위로하고, 치유와 포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센인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문금주

국회의원



“한센인에 대한 오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한센인의 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

차규근

국회의원



“과거 한센변호인단 활동으로 한센인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센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위원장



“한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열악한 현장을 우선적으로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춘진

前 국회의원



“차별과 편견을 넘어 한센인과 일반인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

공영민

고흥군수



“소록도의 아름다운 자연, 고귀한 역사 등과 이곳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발전시킬지 늘 고민하고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한센인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에 깊은 감사...

제22회 한센인의 날을 맞이하여, 한센인들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가장 큰 공로를 세우고, 한센인들이 사회에서 존중받고堂堂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격려를 위한 노력을 보여준 22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되었다.

제22회 한센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포상훈격	성명	소속	직급(직위)
대통령표창	이순자	경남봉사미회	회장
	김연실	(사)한국한센복지협회	의사
국무총리표창	변춘석	(사)한국구라봉사회	부회장
	조상	(사)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본부장
장관표창	정구식	삼애마을	마을대표
	유정순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팀장
	박현경	한국한센총연합회 전북지부	과장
	이창한	사단법인 한국구라봉사회	이사
	엄명숙	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지방간호주사보
	최미숙	경기도 광명시	감염병관리팀장
	한세현	충청남도 금산군	지방보건주사보
	김지혜	경상북도 의성군	지방의료기술서기
	김솔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장
	김소정	경상남도 김해시청	지방간호서기
	박진수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의무직
	김현태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	대리
	최흥근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	과장
	김수정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대리
	최성운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이장
	이주영	국립소록도병원	간호조무주사보
	홍정연	국립소록도병원	간호조무주사보
	박경하	국립소록도병원	간호주사보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제22회 한센인의 날, 사회적 관심 속 언론보도 이어져...

목포MBC 뉴스 등 방송3사 및 40여 개 신문에서 행사 관련 보도 송출

• 서울경제TV (2025. 5. 14.)	한국한센총연합회, '제22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109주년 행사' 개최
• 목포MBC (2025. 5. 15.)	한센인의 날 기념식 열려
• 순천KBS (2025. 5. 15.)	국립소록도병원서 제22회 '한센인의 날' 기념식 개최
• 뉴스핌 (2025. 5. 15.)	복지부, 한센인의 날 행사 개최... 유공자 22명 표창
• 뉴스1 (2025. 5. 15.)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제109주년 및 한센인의 날 행사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경제TV

(주) 서울경제미디어 > 뉴스경제 산업

한국한센총연합회, '제22회 한센인의 날·국립소록도병원 109주년 행사' 개최

■ / 기사승인 : 2025-05-14 09:00:09

3500여명 참석 유공자에 표창 수여
주역자한권 진행 예술인 기술자출연 등
'한국 한센사랑 축제 한마당'도 열려

[사진=한국한센총연합회]

유여운 기자
yeo-or0330@sedaily.com

[서울경제TV=유여운 인턴기자] 한국한센총연합회와 국립소록도병원 오는 15일 한센인의 날을 맞아, 국립소록도병원 복합관 화선실에서 '제22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9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센인의 날'은 국가 한센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이다. '한센인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한센인의 인권신장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행사다.

KBS 뉴스

인재포럼

분야별 뉴스9 TV 뉴스 심층취재 스포츠 시사프로그램 지역뉴스 속보

순천

국립소록도병원서 제22회 '한센인의 날' 기념식 개최

일찍 2025.05.15 (17:02)

제22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가 오늘(15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인사와 전국 각지 한센인 3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오늘 기념행사에서는 22년간 한센인에게 미용 봉사를 한 이순자 씨와 18년간 한센병 환자 발견과 한센인 재활치료에 노력한 의사 김연실 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센인의 날은 전국 한센인이 소록도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한 날로 2004년부터 국립소록도병원 개원일에 맞춰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22회 한센인의 날 행사지원금 현황

소속	성명	금액	소속	성명	금액
회장	이길용	2,000,000	신락마을		100,000
고문	박명웅	300,000	현애마을		100,000
이사	김종열	200,000	천성마을		200,000
이사	정서기	300,000	영호마을	서금순	100,000
이사	김맹환	100,000	정애마을		200,000
이사	박행남	300,000	거창마을		100,000
서울·중부지부	박우택	300,000	금호마을		100,000
전남지부	지재운	200,000	경호마을	이상구	100,000
전북지부	김필중	200,000	상신마을		100,000
경북지부	안영칠	300,000	영락마을		200,000
경남지부	이상용	300,000	용호마을	박현석	300,000
성생마을		2,000,000	여천마을		100,000
도성마을		100,000	에버그린	양용덕	120,000
성심마을	김창일	100,000	성진마을	장순경	100,000
성신마을	김진국	100,000	칠곡마을		300,000
재생마을	정복열	100,000	낙산마을	박건영	200,000
성광마을		100,000	성곡마을		100,000
협성마을		100,000	밀알중앙회	이래홍	100,000
삼청마을	채용태	100,000	계림마을		100,000
성혜마을		200,000	신광마을		100,000
광명마을		100,000	방주교회		300,000
소아마을	이상용	100,000	성곡마을	안경순	100,000
금오마을	정기호	300,000	후원회장	김정남	2,000,000
익산마을	박형남	500,000	염광마을		1,000,000
헌인마을	새마을추진위원회	300,000	(재)대구애락원		1,000,000
예수원교회	윤화현	300,000	낙동마을		200,000

※ 위 명단은 무순이며, 성명 또는 금액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총연합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22회

한센인의 날 추억 앨범

식전 축하 공연(해금연주)



기념식



한센병 박물관 기획전 및 특별전



행사장 외부 풍경



행사장 외부 풍경



추억사진관 1

hri 제22회 한센인의 날



hri 제22회 한센인의 날



hri 제22회 한센인의 날



hri 제22회 한센인의 날



hri 제22회 한센인의 날



hri 제22회 한센인의 날



hri 제22회 한센인의 날



hri 제22회 한센인의 날



추억사진관 2



추억사진관 3

hri 제22회 한센인의 날



hri 제22회 한센인의 날



hri 제22회 한센인의 날



hri 제22회 한센인의 날



hri 제22회 한센인의 날



hri 제22회 한센인의 날



hri 제22회 한센인의 날



hri 제22회 한센인의 날



한센인 장수 기원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를 기리는 ‘제22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총연합회는 5월 15일 소록도를 방문한 한센인과 배우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복지 사업을 진행했다.

동 사업은 노년을 살아가는 한센인들에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한센 가족 40여 명이 참여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

사진 촬영은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를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 촬영용 의상 제공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했다. 참여한 한센 가족들은 전문가와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편안하게 촬영에 임했고, 완성된 사진은 보정 및 액자 제작을 거쳐 각 마을에 전달됐다.

이번 사업에는 녹동고등학교 학생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참여해 촬영을 도우며 어르신들과 따뜻한 교감을 나누었으며, 청소년들과의 소통은 한센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됐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어르신들의 미소 속에 담긴 지난 삶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며 “앞으로도 한센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예방 위한 전동보장구 교육 확대”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총연합회는 5월 29일, 득성마을(대표 김영애)에서 한센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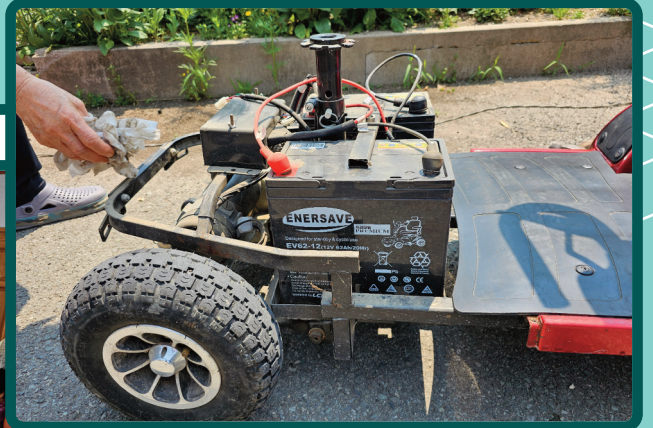
한센병 후유증과 고령으로 인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한센인들의 경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동보장구의 올바른 사용법과 유지 관리, 사고 예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 중인 전동스쿠터의 안전 점검 서비스도 함께 제공됐다.

득성마을 김영애 대표는 “어르신들이 전동차를 사용할 때 역주행하거나 뒤를 보지 않고 후진하는 경우가 있어 늘 걱정이 많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고 전동차 점검도 받아 어르신들이 한층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길용 총연합회 회장은 “앞으로도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이 한센인의 이동 안전과 건강한 일상 유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령 한센인을 위한 인지·신체 건강 함께 챙긴다.”

삼청마을 치매예방교육



총연합회는 삼청마을(대표 채용태)에서 고령의 한센인을 대상으로 인지능력 향상과 치매 예방을 위한 맞춤형 치매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뇌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상에서 치매 예방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도록 돕고 있다.

삼청마을 한센인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진행 중인 교육은 총 15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교육 과정에서는 매주 어르신들의 인지능력을 측정해 뇌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인지 걷기 등 신체 활동을 병행하여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돕고 있으며, 참여 어르신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삼청마을 어르신은 “총연합회에서 추진한 치매예방교육에서 인지 박수를 배우며 박수 순서와 횟수를 기억하려니 긴장이 되었는데, 반복하니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예전엔 팔을 조금만 올려도 어깨가 아팠는데, 교육을 따라 하다 보니 통증이 사라져 신기하다.”라며 “교육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언론의 '나병' 사용 여전... 용어 순화 모니터링

우리 총연합회는 대중매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부적절한 용어들이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지속시키는 문제로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언론 보도에 포함된 차별적 표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정 요청을 통해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발병하지 않으며 조기에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나병' (이 용어에는 편견과 차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학술적 분야에서만 사용하고 있음) 또는 '문둥병'과 같이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의미가 담긴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총연합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언론에 보도된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올바른 질병 용어 사용을 촉구하고, 한센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한센병사업 관리지침' 관련 용어에 따르면, WHO를 비롯한 한국·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는 Leprosy와 Hansen's Disease를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용어 순화를 위해 Hansen's Disease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용어로 사용할 때는 한국·일본·미국은 한센병 (Hansen's Disease: HD)으로 표현하며, 중국은 마 풍 (麻風), 독일은 아우샛쯔 (Aussätzigen), 아랍 국가는 조삼 (ZOS-SAM), 인도네시아는 패니 키트 구스타 (Penikit-kusta)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확한 용어 사용은 단순한 언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인권의 문제이다. 대중매체가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고,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는 데 함께 해줄 때, 한센병에 대한 낙인과 차별도 사라질 수 있다.

앞으로도 총연합회는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하며, 한센인들의 권익 신장과 건강한 사회 인식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중매체 모니터링 현황

수정 일시	언론사명	기사 제목	수정 전 단어	수정 후 단어
4월	연합뉴스	[올드&뉴] 길흉 겹친 헌법재판소 터,尹의 운명은	나병	한센병
	뉴스1	전광훈 "빨갱이들 한칼에 날려야...헌법재판관 8명, 최고 아냐"		나병 (한센병)
	세계일보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두려운 마음으로 일을 성사시켜라		단어 삭제
	소년한국일보	감염병·전염병·세균·바이러스... 인류 위협으로부터 건강 지키는 그날까지		나병 (한센병)
	전북도민일보	함께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		한센병
	중앙일보	"60년 한국봉사가 가장 큰 행복...해야 할 일을 했고, 혼자 해낸 것도 아냐"		
	한겨레	'낮고 소외된 곳' 향했던 교황...그 걸음 따라 조금씩, 절망 없이		
5월	공감신문	"탈시설 당한 장애인 700명 중 24명 사망"... 동의서 위조·의료진 권고 묵살도	나병	한센병
	국민일보	청년들 "주님 따르겠다 결단으로 다시 일어서자"		
	더퍼블릭	천주교 "탈시설 당한 장애인 700명 중 24명 사망"		
	동양일보	4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 기고/ '세계 실험동물의 날' 동물에게 감사함을		
	오마이뉴스	화순의 숨겨진 문화유산과 전설이 깃든 사찰 '옥천사'		
	탐스타뉴스	셀럽병사의 비밀' 이찬원 울먹, 예수의 가르침처럼 사랑으로 살다 간→'수단의 슈바이처 이태석 신부'		
	포인트데일리	[백년가藥] 동국제약 '마데카솔', '상처가 다르면 선택도 다르게' 맞춤형 상처 치료로 '국민 사랑'		
	한국기독교공보	"포화 속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낸 평화 기억해야"		
	헬스조선	"퀘양까지 유발한 '중증 여드름', 6개월만 싹 사라져"... 30대 男, 방법 뭐였을까?		
	법보신문	9. 그 사람 경허선사 -1	문둥병	
	불교신문	영화 '그사람 경허선사' 휴스턴 국제영화제 은상 수상		
	브레이크뉴스	한국사에서 한민족 조상들이 전염병을 대처한 자세		
	영남신문	[한희정의 소소한 패션 히스토리] 경쾌한 여름감성 스트라이프 '줄무늬'	나병 환자	한센인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간행물 메뉴 신설로 정보 접근성 향상

우리 총연합회는 2025년을 맞아 홈페이지의 정보 현행화는 물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 메뉴 신설 등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2024년 12월 말 기준의 국내 한센인 현황이 거주 형태별·지역별로 정리되어 주요 통계 정보로 업데이트되었으며, 총연합회의 조직 현황도 현행화되었다. 특히 정책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주요 조직 정보가 수정·반영되었고, 2024년 한 해 동안 총연합회가 추진한 주요 사업과 활동 내용을 정리한 연혁이 추가되어, 홈페이지를 통해 총연합회의 발자취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들이 홈페이지를 더욱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 구성에도 변화를 주었다. 기존 메뉴 체계를 편집하여 필요한 정보에 더 빠르게 접근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간행물' 메뉴의 신설이다. 총연합회가 격월 또는 격년으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들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간행물 목록	비고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열람 신청서 작성 필요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소식지 『한센』	

다만, ‘일반 국민 인식조사’ 및 ‘정착마을 실태조사’의 전문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자료실’에서 ‘홈페이지 간행물 열람 권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총연합회 이메일로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열람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총연합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한센인(병)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총연합회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총연합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총연합회 홈페이지, 신설 메뉴 ‘간행물’ 일부 캡처화면>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1 일본 한센 가족들에 대한 보상 판결

-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노동을 당한 한센피해자들에게 일본 한센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음
- 이후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구마모토 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상청구소송 또한 2019. 6. 28. 승소 판결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취지에 따라 2019. 11. 15. 한센병원환자가족보상법을 제정하여 한센인 가족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 격리 정책으로 인한 한센 가족 피해를 인정하고 사죄·반성을 표하면서, 한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그 명예 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센가족보상법 제정

2 보상 청구의 내용

- 보상금은 친자, 배우자 180만엔, 형제자매 130만엔 등
- 청구시한은 2029. 11. 21.까지(한시법)

3 보상 대상

- 가족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하 청구자)는 일제강점기하(1945. 8. 15.)에 한센병이 발병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이하 원환자)의 가족
- 대상자는 1945. 8. 15.이전 출생자로서 생존하고, 한센병 발병여부 불문(한센인, 비한센인 여부 불문)
- 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혼인일이 1945. 8. 15. 이전이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
- 원환자는 1945. 8. 15.이전 발병자로서 소록도 입소 및 사망 여부 불문
- 원환자가 일본으로부터 소록도 보상을 받은 경우도 가능(대상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

4 청구시 필요 서류(예시)

- ① 원환자 일제하 한센병 발병사실 증명서류
 - 한센등록(관리)카드, 한센사업기록표, 나병력자 관리카드, 소록도 입소 증명서, 교적부, 세례명부, 소록도 보상결정문 등
- ② 대상자가 원환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일제 또는 해방후 구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③ 대상자가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 생존한 사실
 - 주민등록 초본
- ④ 대상자 은행계좌 사본
- ⑤ 기타 입증서류

5 안내 및 문의

- 현재 한국 변호사들은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을 구성(단장 조영선 변호사)하여 일본 변호단과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음
- 2025. 6. 5.기준 152명(1차 62명, 2차 63명, 3차 14명, 4차 1명, 5차 3명, 6차 5명, 7차 4명)의 서류를 일본에 송부하였고, 116명이 보상 결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보상 심의 중임
- 한센인 가족 피해보상은 한센인과 그 가족들이 당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보상임
- 청구인이 고령자이므로 신속하게 서류 준비 필요(청구인은 일본 정부에 서류를 접수하는 날 기준으로 생존해야 함)

문의사항 한국한센총연합회

전화 1566-2339 / 팩스 : 1566-2032

경기지부, 한센인 정착마을에 생필품 나눔 실천



총연합회 산하 경기지부(지부장 최광현)는 4월 29일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지부장 최영용)로부터 후원받은 생필품 라면 300박스를 정착마을 한센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광현 경기지부장을 비롯해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 김훈 본부장, 정착마을 대표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지원 물품은 경기지부 산하 각 정착마을에 골고루 배분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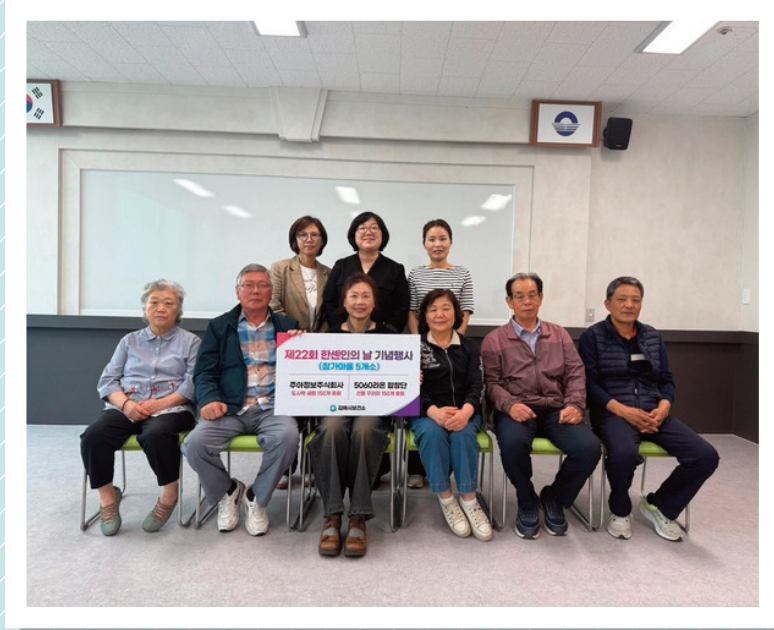
이번 지원은 경기지부와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 간의 지속적인 협력의 하나로, 정착마을 한센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최광현 지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동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정착마을 한센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착마을의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 김훈 본부장 역시 “이번 생필품 지원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통해 한센인 가족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이번 물품 지원을 계기로 앞으로도 정기적인 생필품 나눔 활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착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경남지부, 따뜻한 손길 모인 한센인의 날



▲ 주아정보(주), 5060라운합창단, 김해 정착마을 대표 등

제22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5월 15일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울산·경남지부(지부장 이상용) 정착마을과 관련된 여러 단체가 뜻을 모아 정착마을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의미 있는 행사 참여를 지원했다.

김해시보건소는 김해 관내 5개 한센인 정착마을에서 참가한 어르신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총 102명의 이동을 위해 마을별 차량 지원과 여행자 보험 가입, 차량별 구급함 비치 및 의료 인력 배치 등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 당일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돕는 등 전반적인 안전과 복지에 세심한 배려를 더 했다.

또한 김해 주아정보(주)(대표 김수경)와 5060라운합창단(단장 조말순)도 기념식에 참석하는 김해지역 5개 정착마을 한센인들을 위해 아침 도시락과 선물꾸러미 150개를 후원하였다.

김해에 본사를 둔 주아정보주식회사는 지난해에도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으며, 생림면 한센인 가구의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전기설비 무상 공사 등 꾸준한 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5060라운합창단은 선물꾸러미 150개를 정성껏 준비했으며, 행사 당일에는 고령자 이동 보조와 행사 진행 지원에도 직접 참여해 마음을 나누는 실천을 보여주었다.

한편, 등글레클럽(회장 전미애)은 행사 당일 영신마을 어르신들의 이동을 돕고 음식도 제공하며 현장에서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이 클럽은 영신마을과 17년째 인연을 이어오며, 신년 떡국 나눔, 복날 삼계탕 대접 등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전미애 회장은 “봉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모님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활동해 왔다.”라며 마을 어르신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전했다.

울산·경남지부 이상용 지부장은 “한센인의 날은 한센 공동체가 함께 모여 화합을 다지고 사회와의 연결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여러 단체의 따뜻한 관심과 연대는 한센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제22회 한센인의 날에 참여한 등글레클럽 회원

한센병관리 의료기사반 교육 실시



한국한센복지협회는 4월 29일(화)부터 4월 30일(수)까지 2일간 협회 본부 교육관에서 의료기사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지부 의료기사 13명을 대상으로 한센병의 개요, 궤양 치료 및 관리, 재활 및 보장구 활용 등 한센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한국IDEA협회 소록도 3개 교회 후원금 전달



한국IDEA협회(대표회장 정상권)는 5월 15일, 소록도 연합교회와 신성교회, 중앙교회를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소록도 연합교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백영기 부목사와 교회 대표 장로들을 비롯해 협회 측에서는 정상권 대표회장과 박명웅 후원회장, 안영철 공동회장, 최종현 감사 등이 참석했다.

정상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래 전부터 신성교회와 중앙교회에서 협

회 선교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2005년부터는 총회의 후원으로 선교비를 전달하게 되었고, 오늘도 그 뜻을 이어 작지만, 귀한 마음을 전하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되기를 바라며, 협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국IDEA협회는 매년 소록도를 방문해 꾸준히 선교 후원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노란 수선화처럼... 어르신들 마음에 봄이 왔어요!



완연한 봄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센터장 송정하)에서는 어르신들과 함께 원예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실내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미리 준비된 화분에 깔망을 깔고 마사토와 배양토를 넣은 뒤, 노란 꽃망울이 귀여운 미니수선화를 하나씩 심었다. 어르신들은 손끝에 전해지는 흙의 감촉을 느끼며 꽃을 심는 과정에 집중했고, 마지막으로 흙을 꾹꾹 눌러 마무리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흙과 꽃, 그리고 어르신들의 웃음이 어우러진 이 시간은 삶의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어 직원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생신을 맞이한 어르신들께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고, 생신 케이크의 촛불을 함께 끄며 따뜻한 생신잔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매월 열리는 생신잔치는 어르신들에게 정성스러운 생신상을 차려드림으로써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아쉬움을 달래고,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고 축하하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이처럼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자연을 가까이하고, 서로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은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센터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고,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함이 전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하고 존엄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노년의 삶과 이별

박우택(서울·중부지부장)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다.

노년의 삶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개 칠십 대부터 시작되는 듯하다.

사람들은 ‘나이야 가라’, ‘내 나이를 묻지 마세요’라고 노래하며 늙음을 거부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누구도 세월을 피해 갈 수는 없다.

자연의 순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노년기엔 체력과 시대적 감각이 뒤처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일상이 하나, 둘, 단절되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그렇기에 욕심을 내려놓고, 이별을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어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그동안 바쁜 일상에 묻혀 잊고 지냈던 ‘이별’이라는 두 글자가, 노년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든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병마로 곁을 떠나는 가족, 친구, 이웃을 마주하며, 우리는 이별의 아픔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가끔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절실함과 아쉬움이 밀려온다. 이별은 떠나는 이도, 보내는 이도 모두가 서러운 법.

그래서 ‘이별이 무엇이야’고 묻는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고 노래한다.

결국 이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답은, ‘있을 때 잘하라’는 말뿐이다. 무미건조한 노년의 일상 속에서도, 추억은 언제나 아름답고 오래도록 빛난다. 우리 모두의 따뜻한 노년과 아름다운 이별을 위하여!

한센인들이 소록도 갈 때 들렀던 ‘무카이집’ 이야기

글. 오문수



전남 고흥 녹동항 금산선착장에서 보성 득량만 쪽으로 1km쯤 가면 고흥에서 소록도로 이어지는 소록대교가 보인다. 소록대교 녹동쪽 출발 지점 바로 아래에는 한센인들의 한 서린 ‘무카이 선창’이 있었다. ‘무카이 선창’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이 이름 지었던 ‘무카이 집’이 있었다.

일본어 ‘무카이’와 한국어 ‘집’이 합쳐져 생긴 단어인 ‘무카이집’은 일종의 대합실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인들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 소록도병원을 세웠다. 당시 환자들이 녹동에서 소록도병원을 오가던 배를 기다리던 곳을 ‘무카이집’이라고 불렀다.

소록도병원 개원 초창기에는 노 젓는 배였지만, 후일 엔진을 단 ‘제비호’로 대체됐다. 환자들을 태운 배가 ‘무카이’ 선창을 떠나 소록도에 도착한 곳은 ‘제비 선창’이었다. ‘제비선창’이란 환자들을 태우고 소록도를 오간 ‘제비호’라는 배의 이름에서 연유됐다고 한다.



▲소록도를 오가던 환자들이 사용했던 제비선창의 현재 모습. 한센인들의 한서린 현장이다. © 오문수

‘무카이집’에서 ‘제비선창’까지의 거리는 1.1km쯤 떨어져 있다. 보통 제비호를 타고 제비선창에 내린 환자들은 산길을 1km쯤 걸어 소록도병원에 도착했다.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던 시절, 일반인과 소록도병원 관리 직원들은 녹동에서 출발해 소록도 선착장까지 오가는 선박을 이용했다.

이미 헐려 버리고 없는 집



▲‘무카이집’에서 소록도 행 ‘제비호’를 탄 환자들은 ‘제비선창’에 내려 병원으로 향한다. 지금은 사라진 ‘제비선창’이란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있다. © 오문수



국립소록도병원에서 발간한 <소록도의 구술 기억 1권>에는 '무카이집'을 이용한 환자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11살에 발병해 12살에 소록도에 들어온 박 아무개 씨의 이야기다.

“동네 사람들이 공동 화장실과 공동 우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동네 사람들이 ‘나가라! 나가라!’ 하자 할아버지가 녹동까지 데리고 와서 뱃삿 50환만 주고는 고향으로 돌아가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얼굴이 텅텅 부었어요. 녹동 여그와 가주고 소록도 드나드는 연락선을 탈라 그러니까 선장이라는 사람이 ‘아가야, 아가야. 너는 이 배타지 말고, 저 물가의 집에 가서 타고 가라.’ 그랬어요.

그때가 더운 8월인데, 인자 울면서, 물가의 집이 어디요? 어디요? 묻고 물어 걸어서 녹동 그 선창가에서 거기까지 걸어갔는데 3일을 기다려도 배가 안 오는 거라. 50환 이거이 무슨 돈이라고 밥도 안 사 먹고. 아휴! 그곳에는 슬레이트로 지은 얇קות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3일 동안 굶었어. 그래가지고 물가의 집 옆에 가면은 둥병이 하나 있었어. 거그서 물을 얼마나 먹었던가, 배가 인자 요만해갖고는...”



▲‘무카이집’ 뒷편에 있었던 둥병은 현재 메워졌지만 아직도 땅바닥에 물기가 보인다. '무카이집'에서 제비호를 기다리던 환자들이 이 물을 식수로 이용했다고 한다 © 오문수

박아무개씨는 일본어인 ‘무카이집’을 ‘물가의 집’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3일째 되던 날 소록도에 들어가기 위해 ‘무카이집’을 찾아온 아저씨가 “아가야, 너는 왜 여그왔냐?”고 묻자 “배 탈라고 여그 왔는데 배가 안 와요.”하고 답했단다. 그러자, 그분이 뱃삿을 주면서 작은 배를 하나 불러 함께 소록도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다.



▲국립소록도병원 선착장 모습으로 뒷쪽 부둣가에 소록호가 전시되어 있다. © 오문수



나도 그동안 10여 차례 소록도를 방문해 여러 곳을 돌아봤지만, 이 '제비선창'이 있는 곳은 몰랐다. 하는 수 없어 고흥군 문화해설사 황수연씨의 안내를 받아 '제비선창'과 옛날 일반인하고 소록도병원 관리 직원들만 이용하던 국립소록도병원 소록도 선착장을 돌아봤다. 그곳에는 소록도를 오갔던 '소록호'가 부두에 올려져 전시되고 있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다. 환자들이 이용했다는 '무카이' 선창 모습과 위치였다. 해서 황수연씨의 안내를 받아, 관련해 자세한 내막을 잘 아는 박장길(79세, 인근에서 54년째 조선소를 운영)씨를 만나 '무카이' 선창 위치와 집을 구경하려 했다. 하지만, 찾아본 결과 집은 이미 헐려 버리고 없는 상태였다.

이후 박장길씨는 어릴 적에 녹동에서 보았던 '무카이집'을 그림으로 그려주겠다고 약속했고 일주일 후 그림을 보내주셨다. 다음은 박장길씨의 얘기다.



“당시 ‘무카이집’은 빨간 벽돌집이었어요. 환자들이 ‘무카이집’에 도착해 삭쟁이(소나무 가지)를 주워 불을 피우면 제비호가 와서 싣고 소록도로 갔어요.

저 어릴 적에는 무카이 집이 무서워 가까이 못갔죠. 가끔 소록도에서 탈출하기 위해 헤엄쳐 오다 물에 빠져 죽은 시체가 떠내려오기도 했어요. 바닷물이 소용돌이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필자가 서있는 곳이 ‘무카이집’이 있었던 곳으로 ‘무카이집’에서 소록도 ‘제비선창’까지는 1.1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 오문수

박장길씨가 이야기를 덧붙였다. “환자들이 보성역에서 내려 ‘무카이집’까지 걸어왔다고 그래요. 한하운 시인의 <전라도 길>을 읽어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보성역에서 녹동까지는 약 80km 떨어져 있다. 다음은 한하운 시인의 <전라도 길> 일부분이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찢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지까다비를 벗으면
발꼬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멸시와 차별의 상징인 제비호와 제비선창이 없어진 것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소록도 방문이 계기가 됐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하여 방한한 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한국에서 가장 소외된 곳을 방문하고 싶다.”라는 뜻을 밝혀 소록도가 선정됐다.

1984년 5월 4일, 소록도를 방문한 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중앙운동장에 모인 환영 인파를 축복한 후 ‘참다운 화해의 정신’이라는 주제 강론으로 원생들을 위로하였다. 교황의 방문으로 차별의 상징인 ‘무카이집’과 ‘제비호’, ‘제비선창’이 없어진 것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교황의 정신이 남긴 소중한 유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한센병, 궁금해요!



Q1

한센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나요?
아니오.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Q2

부정군(不定群)나는 무엇을 말하나요?

- 한센병의 한 개 또는 소수의 명확하지 않는 병변이 나타나며, 피부반점이 얼굴, 사지, 엉덩이 등에 발생하며 감각소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 부정군나의 증세는 향후 결핵양형나 또는 나종형나로 진행되기도 하며, 때로는 자연 치유되기도 합니다.



Q3

한센병의 나반응이란 어떤 것인가요?

한센병의 면역학적 변화에 따른 급성 염증 반응이며,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합니다. 나반응은 새로운 감염 없이 급성염증이 때로 심하여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환자의 약 25%에서 관찰됩니다.

Q4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한센병은 치료 가능하며, 완치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한센병은 답손, 리팜피신, 클로파지민 등의 약물을 병용하여 치료합니다. 이 치료를 적기에 하게 되면 조기에 나균이 사멸 되어 한센병이 완치됩니다.

자료출처 : 2025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

놓치지 마세요! 꼭 필요한 복지지원 한눈에 보기

1 요양·돌봄 서비스 지원

- ☑ 대상자: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
- ☑ 제공내용: 일상생활 지원 및 요양(돌봄)서비스
- ☑ 제공기관

기관명	지역	입소 담당
성라자로마을	경기 의왕시	031-452-5655
여수애양평안요양소	전남 여주시	061-682-9595
안동성좌원	경북 안동시	054-852-1448
산청성심원	경남 산청군	055-973-6966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충북 오창읍	043-241-1300

- ☑ 입소비 발생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일부 시설의 경우 입소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

2 생계비 지원

- ☑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생활시설 및 간이양로주택 거주자 제외
- ☑ 제공내용: 매달 약19만원(2025년 기준) 지원(본인통장)
- ☑ 제공기관: 주민등록 관할보건소
- ☑ 안내 및 지원 가능문의: 주민등록 관할보건소

3 재활수술 및 보장구 지원

- ☑ 대상자: 재활수술 및 보장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제공내용 및 제공기관
 - 연구원: 성형외과, 정형외과, 치과, 안과 등 지원
 - 연구원·지부: 의수족, 보조기, 족지, 특수화 등 맞춤형 제작 지원
- ☑ 안내 및 지원 가능문의: 진료받는 복지협회 문의

4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 치매예방교육,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 ☑ 한센인 복지 사업: 찾아가는 문화복지, 한센인 합동결혼식, 우리마을 행복사진관(장수사진), 한센인 독거노인 돌봄
- ☑ 기획·홍보 사업: 한센인 구술 기록화
- ☑ 안내 및 문의: 한국한센총연합회 1566-2339

5 피해보상 청구

- ☑ 대상자: 일제 강점기하 가족(2세 및 배우자 포함) 피해자
- ☑ 제공내용: 피해보상 청구 관련
 -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페이지 참조
- ☑ 안내 및 문의: 한국한센총연합회 1566-2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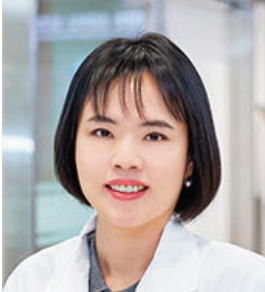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지원 안내문' 홍보물

정확한 진단과 규칙적인 약물 복용이 중요합니다!

글. 박신영 사진. 안용길

[출처 : 경희의료원보 프리포즈 2025년 봄호 VOL. 453 中]





황경진 교수
(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 뇌전증은 특정한 부위의 뇌세포들이 과도하게 흥분해 발작을 일으키는 신경계 질환으로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황경진 교수는 정확한 진단과 규칙적인 약물 복용이 뇌전증 치료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

■ 전문 진료분야

뇌전증(간질), 경련성질환,
실신,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 한쪽 팔과 다리 떨리면 뇌전증 의심해야 뇌파 검사와 MRI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기본

뇌전증은 뇌세포들이 전기 신호로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 순간적으로 특정 뇌세포의 억제력이 약해져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하는 질환이다. 뇌전증의 주요 증상은 의식 소실, 발작, 행동 변화 등으로 일시적이지만,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뇌전증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뇌 영역마다 담당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죠. 가장 잘 알려진 증상은 운동성 경련 발작으로 한쪽 팔과 다리가 떨릴 수도 있고, 전신이 모두 떨리기도 합니다. 측두엽에서 뇌전증이 일어나면 갑자기 의식을 상실하거나 입맛을 다시기도 합니다. 뇌전증이 뇌 전체에 나타난다면 거품을 물며 온몸이 뻗뻗해지는 대발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경진 교수는 뇌전증을 진단할 때 뇌파 검사와 뇌 MRI가 필수라고 말한다. 뇌파 검사에서 뇌전증파가 발견되면 뇌전증으로 확진할 수 있고, 이상 소견에 따라 부분발작과 전신발작으로 발작의 종류도 판단할 수 있다. 뇌 MRI는 해마경화, 뇌종양, 선천성뇌기형, 뇌졸중 등 뇌전증을 일으키는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발작 완화가 최우선 규칙적인 약물 복용과 생활 방식이 중요해

뇌전증 치료의 기본은 약물 치료다. 여러 약물 중 항발작제가 뇌전증 발작 억제에 효과적이다. 약물을 복용하는 뇌전증 환자 60% 이상이 발작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약 20%는 수개월에 한 번 발작을 보인다.

“충분한 기간 적절한 용량의 약제를 복용하더라도 경련이 발생하면 ‘난치성 뇌전증’으로 진단합니다. 이때는 약물 치료보다 수술을 고려합니다. ‘난치성 뇌전증’이 아니더라도 뇌종양, 동정맥 기형 등 뇌전증 원인이 되는 병소가 있으면 일차적으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술이 어려우면 발작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 미주신경자극술을 제안합니다.”

황경진 교수는 뇌전증 치료의 목표를 ‘발작 완화’라고 강조한다. 처방받은 약물의 용량, 복용 횟수와 시간을 지키는 게 먼저다. 부족한 수면도 발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알코올이 항발작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발작을 유발할 수 있어 음주는 절대 금지다.

■ 신경계 질환 중 하나일 뿐 뇌전증 인식 개선하고 강화해야

뇌전증 약은 성분명을 기준으로 20여 개에 이른다. 부작용이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알려진 부작용을 개선한 약제도 꾸준히 출시 중이다. 국내에서도 이전 약제보다 부작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투여했을 때 몸 안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이 낮고, 복용 편의성을 높인 3세대 항발작제가 속속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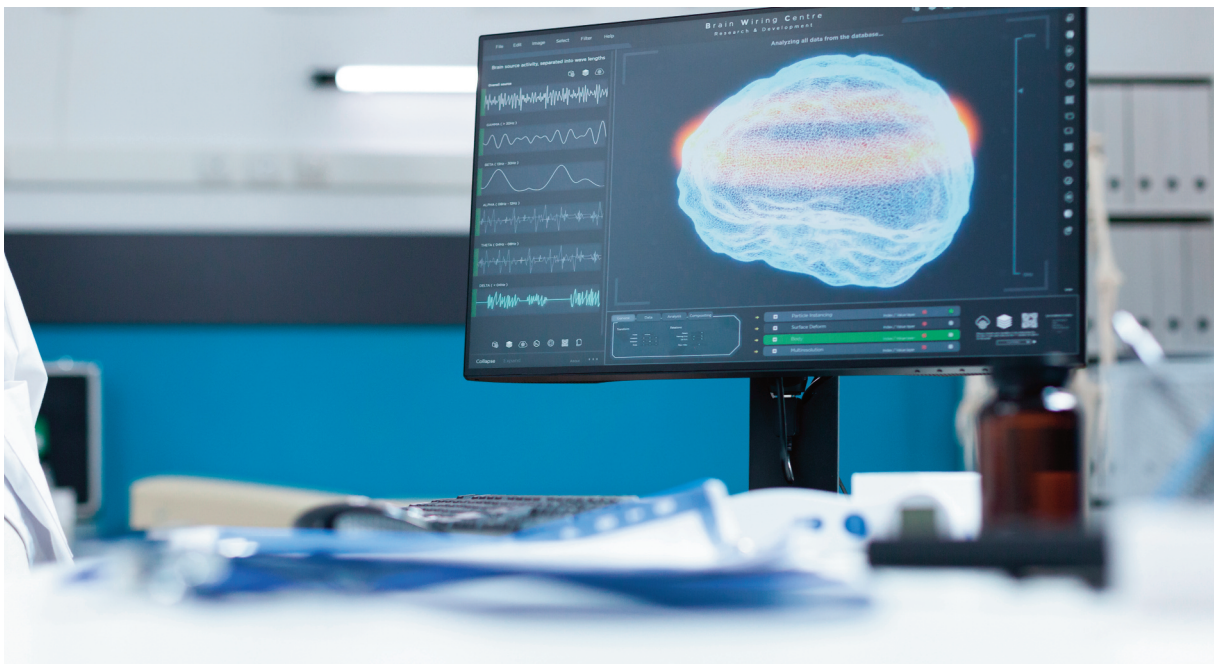
“60대 어르신이 20대 때 발병한 뇌전증 진단을 부정하며 우울증이 심한 상태로 내원 하셨습니다. 부작용이 두려워 약제를 복용하지 않으셨고, 뇌전증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숨어서 지내다 보니 사회 활동이 없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뇌전증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항발작제를 복용하자, 증상이 완화되고 우울증도 나아져 일상생활을 시작 하셨습니다.”

황경진 교수는 뇌전증을 인종, 나이, 국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신경계 질환이라고 언급했다. 카이사르,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단테 등 세계적인 위인 또한 뇌전증 환자라고 알려졌다.

“뇌전증 발작을 잘 조절하면 일반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뇌전증 환자와 뇌전증이 없는 사람들 모두 뇌전증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뇌전증 환자라는 이유로 위축되지 말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뇌전증 발작을 잘 조절하면 일반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뇌전증 환자와 뇌전증이 없는 사람들 모두 뇌전증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오해와 진실 Best 3



뇌전증은 정신병이다?

— 뇌전증의 영문명인 ‘Epilepsy’은 ‘악령에 의해 영혼이 사로잡힌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다. 과거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던 ‘간질’이나 ‘전간증’에도 ‘미친병’, ‘지랄병’의 의미가 있었다. 이처럼 뇌전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신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이는 오해이다. 뇌전증은 뇌의 흥분성 조절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전증은 불치병이다?

— 뇌전증은 난치병이지 불치병이 아니다. 약물을 쓰거나 병소를 제거해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면 발작의 빈도가 낮아지고, 증상이 호전되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약제 중단도 가능하다.



뇌전증은 전염되거나 유전된다?

— 뇌전증은 전염성 질환이 아니며, 유전 성향도 강하지 않다. 유전적 요인의 비중은 비만과 고혈압보다 낮다. 뇌전증 대부분은 뇌 손상의 후유증, 감염,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바나나 껍질은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햇갈리는 쓰레기 총정리!

■ 무슨 냄새야?

날씨가 더워지면 음식물 쓰레기 고민도 커집니다. 무엇보다 급하게 버리다 보면 일반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거나, 반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로 잘못 분류하는 실수도 자주 생기죠.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나누는 기준이 있고, 기준에 맞춰 나눠 버려야 합니다! 햇갈리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구분!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 음식물쓰레기 어디에 쓸까?

- ① 사료화: 잘게 부수고 살균 처리해 돼지, 닭, 곤충 등 동물 사료로 가공
- ② 퇴비화: 미생물 발효 등으로 분해해 퇴비로 만들어 농업용 토양에 사용
- ③ 바이오에너지화: 혐기성 소화로 바이오가스(메탄 등)를 만들어 발전소나 연료로 사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

수거 및 운반 → 1차 선별(비닐, 나무젓가락 등 걸러내기) → 살균·건조·분쇄 → 재활용

■ 기준은?

- ①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쓰레기, 먹을 수 없으면 일반쓰레기
- ② 딱딱하거나 질긴 것, 독성·염분이 많은 것,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일반쓰레기

*지자체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세요.

■ 햇갈리는 음식물·일반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 밥·국·반찬류, 채소 뿌리·껍질 제외 모두, 과일 부드러운 껍질, 과육, 고기 살코기, 내장, 비계, 생선 내장, 살코기 등의 종류는 음식물 쓰레기!

*바나나 껍질, 사과 껍질, 귤 껍질, 생선 내장, 통무, 통호박, 통배추, 미역, 다시마, 묵은 쌀 등



● 일반쓰레기

- 딱딱한 껍질·씨, 뼈·껍데기, 채소 뿌리, 독성·염분(복어, 된장·고추장 등)의 종류는 일반쓰레기!

* 된장·고추장 등 소스류는 물에 행구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가능
호두 껍데기,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생선 뼈, 치킨 뼈, 커피 찌꺼기, 차 찌꺼기, 옥수수대, 양파껍질, 파 뿌리, 복숭아씨 등

■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주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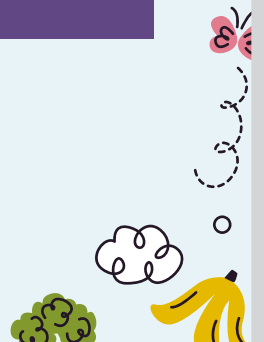
- ① 물기 제거!
- ② 이물질 제거: 비닐, 병뚜껑, 플라스틱,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제거
- ③ 염분, 양념류 제거: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 소금이나 양념이 음식은 물로 행굴 것
- ④ 종량제 봉투 사용, 정해진 시간만 배출 등 지자체별, 아파트 단지별 규정 지킬 것
- ⑤ 음식물쓰레기와 분리배출: 섞어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 가능성 있음

■ 과태료는 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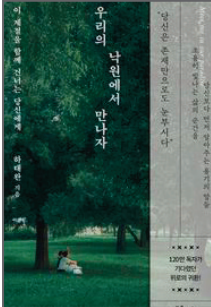
-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 시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최대)
- 종량제봉투 미사용, 지정된 배출 방법·장소·시간 위반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최대)
- 불법투기: 5만 원, 무단투기: 50만 원, 불법 소각: 50만 원

*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으니, 내가 사는 지자체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번거롭더라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나눠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버려주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이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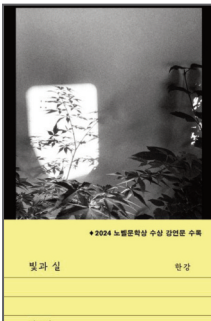


우리의 낙원에서 만나자

2년 만에 돌아온 작가 하태완, 다정한 언어로 다시 시대를 위로하다

신간 『우리의 낙원에서 만나자』는 작가가 그동안 세심히 다듬어 온 사랑의 언어를 바탕으로, 삶 전반을 지나는 우리 모두의 내면과 감정을 어루만진다. 자꾸만 삶에 의심이 들고 내가 나를 지켜내는 일이 버거워지는 순간,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는 말을 믿으며 하루를 건넌다. 하태완 작가는 말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픈 마음을 놓지 않는 당신, 그 모든 흔들림은 의미 있다”라고. 이번 책에서 작가는 나를 지키는 사랑과 관계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보내는 응원을 이야기한다. 마치 내 삶을 다 아는 누군가가 조용히 옆에 앉아, “당신이 정말이지 자랑스럽다”라고 말해주는 격려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더듬듯, 진심 어린 마음으로 채워진 글들은 우리를 위로하는 동시에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준다.



빛과 실

마침내 우리 곁에 당도한 봄, 깨어나는 연둣빛 생명의 경이
살아 있는 한 희망을 상상하는 일, 그 오래고 깊은 사랑에 대한 한강의 기록들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하고 시적인 산문”이라는 선정 이유와 함께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신작 『빛과 실』(2025)이 문학과지성사 산문 시리즈 <문지 에크리>의 아홉번째 책으로 출간되었다.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문 「빛과 실」(2024)을 포함해 미발표 시와 산문, 그리고 작가가 자신의 온전한 최초의 집으로 ‘북향 방’과 ‘정원’을 얻고서 써낸 일기까지 총 열두 꼭지의 글이, 역시 작가가 기록한 사진들과 함께 묶였다.



Qu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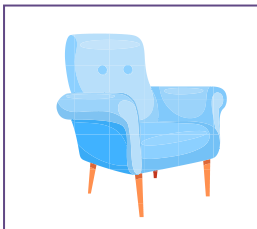
한국한센총연합회와
똑똑한 두뇌 운동하고, 치매를 예방해요!

문장 완성하기
그림을 보고 올바른 문장이 되도록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렸습니다



의자에

걸었습니다
앉았습니다
마셨습니다



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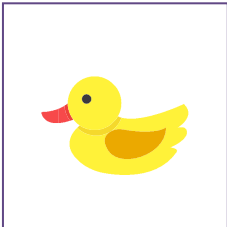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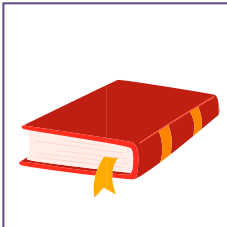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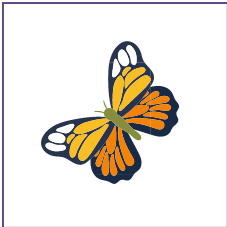
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떴습니다



전화기로

전화를 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우산을 폈습니다

세는 말
상자 안에 있는 단위로 수를 세는 그림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송이			
권			
마리			
병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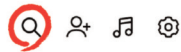


총연합회 카카오톡

+ 채널 추가하는 방법

1.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한다.

친구



한센사랑

2. 한국한센총연합회를 검색한다.

← 한국한센총연합회

채널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한센인과 국민 간의 소통을 통한 한센인(병) 편견해소, 한센인의 사회통합과 재활 실현을 위...



3.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소식 받아보기



(사)한국한센총연합회

친구 81 명

한센인과 국민 간의 소통을 통한 한센인(병) 편견해소, 한센인의 사회통합과 재활 실현을 위한 단체임



채팅하기



채널 추가

소식

정보

상담원 채팅

월,화,수,목,금 09:00~18:00

기관/단체 > 복지

<http://www.hansenkorea.org/>

02-1566-2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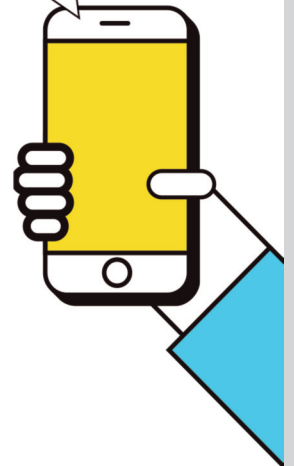
hansen@hansenkorea.org

연락처 시대에도

당신의 온기로 채워지는
따뜻한 세상



QR 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센 게시판

한센인(병) 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운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한센인 또는 한센병 관련 유물을 기증(서약)받고 있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



한센시설(병원) 생활유품
또는 기록

한센가족 후원 또는 봉사
관련 자료

한센가족 작품
(문학, 미술, 음악, 사진 등)

기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한센인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소식지 '한센' 원고 모집 공고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응모 기간 : 상시 접수

■ 원고 내용 및 분야

- 한센인 관련 미담, 에피소드, 봉사 수기
- 한센인 창작 또는 한센인 소재 문학
: 시, 소설, 수필 등 제한 없음
- 한센인의 생활현장, 민원 등 지역 소식
- 한센인 관련 정책·학술·역사 자료
- 한센인 관련 다양한 분야의 칼럼
- 기타 '한센' 게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

■ 응모 방법

- 제출처 : 총연합회 '한센' 담당자
-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 팩스제출 : (02) 1566-2032
- 이메일제출 : hansen@hansenkorea.org
- 전화문의 : (02) 1566-2339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후원회장 김정남

후원계좌 국민은행 433401-01-330682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 본부 및 지부 주소

지부명	전화	팩스	주소
중앙회	1566-2339	1566-203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서울·중부지부	(02)532-6777	(02)532-90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20(방배동 202호)
부산지부	(051)245-8207	(051)245-820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4번길 3
인천지부	(032)529-0900	(032)522-085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 41 (간석동)
경기지부	(031)973-5329	(031)973-317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 802-1호
전북지부	(063)542-7822	(063)545-7820	전북 김제시 갈공길 21
광주·전남지부	(062)524-3485	(062)524-3484	광주광역시 북구 버들로 23 동방빌딩 3층
대구·경북지부	(054)971-8975	(054)977-8975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4길 5
울산·경남지부	(055)584-4333	(055)584-4332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방어산로 618

‘한센’ 편집 자문위원

위원장	우홍선(사무총장)
위원	박영립(법무법인 최앤박 대표변호사), 신재균(법무법인 서해 변호사), 옥춘광(작가)
기획	전희진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안식처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제 평화로운 삶을 누리십시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는 고령한센인을 위한 노인 친화적 환경의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고령한센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공감을 포괄할 수 있는
 전인적 관점의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사례관리
 인권개선운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실천
 보편적 협력기관 확대
 긍정적 환경마련



노후생활 안전보장

1:1 개별 서비스
 요양·보호·여가 지원
 안정적 생활환경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EVERGREEN WELFARE CENTER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116-15 | TEL : 043) 241-1300 / FAX : 043) 241-1302
 E-mail : egwc1300@egwc.or.kr | 홈페이지 : http://www.egwc.or.kr



하나하나의 나눔이 모여
더 큰 베품과 사랑이 됩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늘 여러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